



최현립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 모유 수유, 가정이 건강해진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조직 단위다. 이러한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줄어들고, 애정은 식고, 서로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에서 가족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가족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아이에 대한 애정은 두 부부를 맺는 끈이 되고 부부 사이의 완충역할을 해 준다. 오늘날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너무나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심도 줄어들고 모든 문제들을 물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가족은 아이의 출산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오랜 기간 엄마의 품속에서 젖과 애정을 먹고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속에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매우 드문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50% 정도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출생한 최종 출생아의 수유 양상 조사) 모유 수유율은 생후 2주에 46.2%, 생후 1개월 때에 35.7%, 생후 2개월 때에는 31.0%, 생후 3개월 때에 26.5%, 생후 6개월 때에 20% 미만, 생후 10개월 때에 10%대로 연령 증가와 함께 급속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모유 수유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유 수유율이 1999

년에는 10.8%, 2000년 11.0%, 2001년에는 16.3%로 조금씩이나마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 면이 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많다. 본래 여자의 젖가슴은 외형적으로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자식의 젖을 먹이기 위함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엄마 젖을 먹이는 대신에 분유를 먹임으로써 젖을 안 먹인 부인들의 유방암 발생이 젖을 먹인 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엄마 젖을 먹지 못하고 자란 아기들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고, 자라서도 정신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엄마 젖은 분유에 비해 장점이 많다.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지만 엄마 젖의 장점을 몇 가지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엄마의 젖은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최상의 영양원이다. ② 가장 신선하고 적절한 온도로, 무균상태로 공급된다. ③ 젖을 먹이면 엄마와 아기 사이가 더욱 친밀해진다. ④ 엄마 젖에는 아기에게 꼭 필요한 면역물질이 들어 있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한다. ⑤ 아기의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⑥ 어린이가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⑦ 어린이의 IQ, EQ 발달에 좋다. ⑧ 산후 어머니의 자궁 수축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⑨ 어린이의 중이염, 충치, 비만을 예방한다. 엄마 젖의 콜레스테롤 섭취로 인해 이와 관련된 어린이의 성인병을 예방한다. 젖을 먹인 엄마의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엄마 젖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율이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실질보다는 외양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

본래 여자의 젖가슴은 외형적으로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자식의 젖을 먹이기 위함이다. 과학의 발달로 엄마 젖을 먹이는 대신에 분유를 먹임으로써 젖을 안 먹인 부인들의 유방암 발생이 젖을 먹인 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엄마 젖을 먹지 못하고 자란 아기들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고, 자라서도 정신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에 젖가슴을 내놓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썩스럽게 생각한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면서 아기에게 오랜 기간 엄마 젖을 먹일 시간적, 사회·환경적 제한이 따른다. 또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분유회사를 비롯한 산후조리원, 병원 등의 홍보가 분유를 더 선호하게 만든다. 심지어는 의학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인들이 모유 수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산모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와 WHO(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모유수유를 장려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1981년 WHO 총회에서는 '모유대체식품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을 제정하여 모유대체식품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UNICEF에서는 '성공적인 모유 먹이기 10단계'의 행동지침을 정하여 모유 수유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한국모유수유협회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들과 발맞추어 모유수유에 관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모유 수유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모유 수유를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